

2주 2020년 동계방학 목상지

12월 21일 월요일	<말씀목상>	욘 25-27
<p>· 내용요약: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욘의 명명된 고백을 듣고 난(24장) 빌닷은 25장에서 마지막 변론으로 위엄차고 초월하신 하나님과 벌레요 구더기 같은 존재인 미천한 인간과의 차이를 말함으로써 욘의 주장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은근히 꼬집고 있다. 26장에서 욘은 반어법으로 친구 빌닷의 주장을 일축하고(1-4절) 자신의 신앙을 기초로 하나님의 위엄과 초월한 권능에 관해 설명한다(5-14절). 하나님의 절대권능과 초월한 권능이야말로 욘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27장에서 욘은 지금까지의 일관된 주장처럼 친구들의 변론이 올바른 권면이 아닌 허탄한 것임을 지적하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며(1-12절), 하나님은 악인에게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피력한다(13-23절).</p> <p>· 질문: 욘은 죽기전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우리도 이같은 신앙의 정절을 갖고 있는가?(27:5).</p> <p>· 생각하기: 악인은 일시적으로 변성할지 모르나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악인은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 모든 노력이 헛되고 만다. 오늘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어떤가? 세상것물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p>		
12월 24일 목요일	<말씀목상>	욘 34-36
<p>· 내용요약: 34장에서 엘리후는 욘의 입에서 나온 탄식과 절규를 근거로 욘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했다고 매도함으로 욘의 내적변인과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35장에서 엘리후는 두 가지 점에서 욘의 허물을 책망하게 된다. 엘리후는 지난 번 욘이 고통 속에서 친구들의 정죄에 단호히 맞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했던(6:29-30)사실을 근거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지적하다(1-8절). 엘리후는 고통 중에 있는 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결여(10-11절)와 죄로 인한 장애(12절) 및 잘못된 간구함(13절)등이라고 지적함으로 욘의 허물을 비난한다. 36장은 37장과 더불어 욘에 대한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다. 엘리후가 욘에게 권면하는 것의 정당성(1-4절), 하나님의 공의(5-16절), 욘의 성급한 성격에 대한 경고(17-25절),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권능(26-33절) 등이다.</p> <p>· 질문: 연단가운데 있는 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36:8-16)</p> <p>· 생각하기: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만은 아니다.</p>		
12월 27일 일요일	<말씀목상>	시 28-30
<p>· 내용요약: 28편은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아픈 한 때였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주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삼하15:13-16:14). 탄식어린 어조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간구(1-2절)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간곡하게 요청(3-5절)하고 지난 날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도와 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진 시인이 미리</p>		

12월 22일 화요일	<말씀목상>	욘 28-30
<p>· 내용요약: 욘기는 내용상 전반부(1-27장)와 후반부(29-42장)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고난 중에 있는 욘과 그를 위로하고자 찾아온 세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소개되고 후반부는 욘의 절규와 제3의 인물인 엘리후의 권면 및 고난당하는 욘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하나님의 개입을 소개한다. 28장은 사람이 지혜를 얻는 일이 광석을 채취하고 제련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임을 노래하고(1-11절), 그런 이유에서 지혜는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녔음을 노래한다(12-19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한다(20-28절). 29장에서 욘은 지난 날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1-5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을 행하며 형통할 수 있었음을 피력한다(6-25절). 30장에서 욘은 아픈현실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 영적고통으로 더욱 아프고 힘들을 고백하며 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p> <p>· 질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역경을 이겨나가고 있는가?(29:1-11).</p> <p>· 생각하기: 욘은 고통 중 하나님의 침묵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했다.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다. 혹 우리도 믿음생활 중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까 의심해본 적이 있는가?</p>		
12월 25일 금요일	<말씀목상>	욘 37-39
<p>· 내용요약: 37장은 엘리후가 욘에게 주는 마지막 조언인 동시에 지금까지의 인간들의 모든 논쟁이 끝나고(3-37장)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개입(39-41장)이 소개되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초월한 능력과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절대주권이 강조됨으로 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8장에서 하나님은 당신과 인간사이의 절대적 차이를 강조하시고 욘의 무지하고 허탄한 자기변호를 일축시키시기 위해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는 과연 누구인가를 물으시며 욘의 무지를 일깨우신다. 39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월한 능력과 지혜를 강조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우치시는 장면이 소개된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 때 바로소 참지혜와 온전한 회복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p> <p>· 질문: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요 운행자임을 신뢰하는가?</p> <p>· 생각하기: 진정 인간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p>		
12월 26일 토요일	<말씀목상>	시 25-27
<p>· 내용요약: 25편은 대적들의 극심한 위협에 직면한 시인이 그 상황을 인내하며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의뢰하는 간구의 시이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1-3절)과 인도하심(4-7절)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노래하며(8-14절), 환난과 곤고에 처한 자신의 사정을 다시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한번 호소하고 한다(15-22절). 2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히 살기를 힘썼는지에 관한 고백(1-5절)과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6-12절)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경건히 살기를 힘쓰는 자의 기도는 항상 힘과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넘칠 수 밖에 없다. 27편은 비탄조의 시로 분류되기도 하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과 승리의 확신이 담겨있는 승리의 찬가이다.</p> <p>· 질문: 기도가 끊어지면 삶은 무너지는데 우리의 영적상태는?</p> <p>· 생각하기: 주님은 거룩한 분으로 거룩한 이들과 교제를 원하신다(레11:45).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p>		
<p>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노래(6-9절)로 구성되어 있다. 29편은 여호와와의 위엄과 권능을 한껏 찬양한 경배시로 대자연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시19편과 짝이 이룬다. 대자연의 위용 앞에 감탄을 발하나 대자연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그분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비극이다.</p>		
<p>30편은 다윗이 인생말년에 자신의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온갖 고난과 질곡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간증시이다.</p> <p>· 질문: 세상은 우리를 즐겁게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영원히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는가. 우리의 기쁨은 어디인가?</p> <p>· 생각하기: 정녕 하나님의 탁월한 권능과 역사를 확신한다면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p>		

이름: _____ 학번: _____		
12월 23일 수요일	<말씀목상>	욘 31-33
<p>· 내용요약: 욘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했던 지난 날의 삶(29장)에 기초하여 자신이 도적으로 순전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한다. 특히 욘은 16개의 '언제...그렇게 하였던가'라는 가정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난 날의 순전함과 도덕적 완전함을 강조하였다. 32장은 욘의 세 친구들의 변론 및 욘의 독백적인 탄식을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중재자로 자처하며 변론에 개입하는 내용이다. 엘리후는 자신들의 고지식하고 편협한 신앙관으로 고통 중에 있던 욘을 무조건 정죄했었던 세 친구들은 물론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꿇기를 거부했던 욘의 허물을 동시에 지적하며 참지혜의 권면을 주고자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초월한 경륜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33장은 엘리후가 욘의 죄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다. 엘리후는 연단과 구원에 대해 나름대로 발전된 견해를 피력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그는 욘이 직면한 고통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p> <p>· 질문: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깊고 오묘한 뜻을 신비로 남겨두신다.</p> <p>·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심은 그가 영원한 파멸의 구렁이에 이르지 않게 하기위한 사랑과 긍휼 때문이다.</p>		
12월 26일 토요일	<말씀목상>	시 25-27
<p>· 내용요약: 25편은 대적들의 극심한 위협에 직면한 시인이 그 상황을 인내하며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의뢰하는 간구의 시이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1-3절)과 인도하심(4-7절)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노래하며(8-14절), 환난과 곤고에 처한 자신의 사정을 다시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한번 호소하고 한다(15-22절). 2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히 살기를 힘썼는지에 관한 고백(1-5절)과 그러한 온전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6-12절)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경건히 살기를 힘쓰는 자의 기도는 항상 힘과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넘칠 수 밖에 없다. 27편은 비탄조의 시로 분류되기도 하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과 승리의 확신이 담겨있는 승리의 찬가이다.</p> <p>· 질문: 기도가 끊어지면 삶은 무너지는데 우리의 영적상태는?</p> <p>· 생각하기: 주님은 거룩한 분으로 거룩한 이들과 교제를 원하신다(레11:45).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p>		
<p>30편은 다윗이 인생말년에 자신의 지나온 생을 돌아보면서 온갖 고난과 질곡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간증시이다.</p> <p>· 질문: 세상은 우리를 즐겁게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영원히 만족시켜주지는 못하는가. 우리의 기쁨은 어디인가?</p> <p>· 생각하기: 정녕 하나님의 탁월한 권능과 역사를 확신한다면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p>		